

디지털콘텐츠 불법 파일공유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¹

A Social Cultural Approach to Illegal Digital Contents Sharing

박경자 (Kyung Ja, Park)²

순천대학교 중소기업경영연구소

Abstract

Why illegal digital contents sharing happe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file sharing is an exchanging behavior between people and it is expanding despite of an illegal behavior and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henomenon to be understood from social cultural point of view beyond a personal dimension. Based on the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demonstrates effects of file sharing attitudes and continuity, regarding 'group norm', 'popular demand', 'reciprocity' and 'social solidarity' as main facto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it is shown that a tacit agreement of a group on file sharing is a determinant of positive attitude to file sharing and the intent of continual file sharing. Second, it is not found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re regarded as potential influential factors on file sharing attitude have effects on file sharing behavior, except for 'group norm'. Unlik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may come from the fact that this study deals with an illegal behavior. The third finding indicates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factors. When members of a group have more amicable attitude to file sharing including silence or a tacit agreement on file sharing, more people ask illegal sharing of files that they need. Such public demand creates expectation of reciprocity. As reciprocity maintains, social connectedness is strengthened. Then, strong social connectedness escalates the intent to maintain file sharing.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is study promotes understanding of how digital contents sharing happens by structuring and demonstrating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social relationship

Keywords: Digital Contents, Pricy, File Sharing, Social Exchange Theory, Social Connectedness

¹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10일; 1차 수정: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10일

² 단독저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것을 연결하면서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공유의 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창작물들을 디지털파일형태로 변환하거나 복사본을 만드는 일은 아주 용이해졌으며 순식간에 어디로든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송과 가공에 있어 변환이 더욱 자유로워져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를 타인과 교환하고 공유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콘텐츠를 업로드, 다운로드, 공유하는 것은 불법복제(Piracy)에 해당된다(Higgins et al. 2007).

불법복제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복제와 유통을 하는 산업적 복제(Industrial Piracy), 원본 하나를 조직내 여러 컴퓨터에 복제하는 조직적 복제(Corporate Piracy),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재판매자 복제(Reseller Piracy),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프트 리프팅(Softlifting) 등의 유형이 있다(김종기·전진환 2007; Gallegos 2000). 이중 소프트리프팅은 개인들이 적절한 라이선스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사용자단순복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된 콘텐츠를 구한 다음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랩톱에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사용자단순복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게임 등 모든 콘텐츠분야에 걸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행해지고 있어(박경자 2015) 이로 인한 피해는 콘텐츠산업의 공멸의 위험성이 논해질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기술적 장치를 강화하고 단속이나 법적 규제 등 강력한 대응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사용을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

만 우리 주변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사용을 위해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파일공유는 그 특성상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의 구축과 작동이 쉽지 않으며, 지나친 저작권보호는 디지털시대의 자유로운 소통과 나눔의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파일공유는 업로드나 다운로드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교환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참여정신을 왜곡시키고 자칫 잘못된 공유문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들간의 공유행동은 주로 지식경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강조되어 왔을 뿐, 불법 파일공유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법복제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불법복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윤리적사결정모델(Models for Ethical Decision Making) 기반의 연구들에서는 불법복제를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대표적인 윤리문제로 보고(김광용 2004; Chen et al. 2008; Siponen and Vartiainen 2005), 합리적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및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토대로 불법복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다(e.g., 전진환·김종기 2009; Al-Rafee and Cronan 2006; Liao et al. 2010; Peace et al. 2003). 이들 연구에서는 불법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의도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인의 태도와 규범을 형성하고, 이는 의도에 영향을 주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법복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하였다(Al-Rafee et al. 2006). 그리고 법률 및 규제관점에서는 단속이나 처벌강도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e.g., 김왕석 외 2005; 박경자 2015; Peace et al. 2003).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복제행위를 저작권위반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윤리적인사결정보호모델만으로 복제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중환 2013; 박현정·김상훈 2011).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들은 서로 상충되어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김중환2013; 박경자 2015), 모든 복제행위가 목적기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이론들 외에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박경자 2015; 오현숙 외 2013; Bagchi et al. 2006; Tang and Farn 2005).

그렇다면 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파일 공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선행연구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파일공유를 불법복제행동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파일공유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 이루어진 연구들은 파일공유의 원인이나 행동을 예측하기 보다는 저작권 제도방안 및 합리적인 수익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e.g., 김왕석 외 2005; 안지혜 2010).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일공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로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목적이나 특정 공유사이트가 아닌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단순사용을 위한 개인들간의 파일공유현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파일 공유는 타인과의 교환행위이므로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반사회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내포한다. 셋째, 상업적 목적이나 강제성없이도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사회관계적인 심리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내 개인의 사회적 관련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집단규범’과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토대로 불법 파일공유에 대한 태도 및 지속의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개념적 배경

2.1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이론은 Homans(1958)의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라는 저서를 통해 제시된 이론으로 개인을 둘러싼 크고 작은 조직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Reward)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보상은 행위자들간의 가치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자긍심, 기쁨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보상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보상은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미래의 불특정 시점에 제공되기도 하며 제공한 가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회적 교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교환과 달리 명확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가적인 교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Blau 1964). 따라서 사회적 교환은 경제적 교환과 달리 특정화되지 않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갖는다. 교환자들간에 상호호혜성이 유지되면 이들의 관계는 지속되고 호혜성이 깨지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호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Blau(1964)는 개인간의 교환관계를 확장하여 좀 더 집합적인 결과를 이해하고자 했다. 개인들간의 사회적 교환은 또 다른 혜택과 보상으로 이어져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좀 더 집합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를 형성하여 점차 조직적인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이나 조직내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동료로 하여금 빚을 갚으라는 의무를 지우며 타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보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해야 할 유인으로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유대(Connectness)가 형성되어 사회적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교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를 설명하고 강화된 태도 및 행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Xiao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불법복제와 같이 부정적 행위에 있어서도 사회적 교환이론을 토대로 진행된 소수의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Glass and Wood(1996)는 사회교환이론의 공정성이론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한 바 있다. 이들은 사람들의 요구와 상호호혜성 때문에 불법복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종기·전진환(2007)은 사회유대이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복제태도와 의도, 행위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불법복제에 대해 묵인하는 집단규범이 불법복제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Bagchi et al.(2006)은 콘텐츠의 질이나 상황 등 많은 요소들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사회집단의 문화적 영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의 관행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허용여부나 요청,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호혜성 및 유대 정도와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들은 집단 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온라인에서의 공유행동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간의 공유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상업적 목적없이 온라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공유행동은 플랫폼다수가 모인 커뮤니티나 특정집단이나 조직의 실행공동체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 정재현 외(2009)는 개인적 동기요인과 구조적 자본요인, 관계적 자본요인을 구성하여 온라인 지식네트워크에서의 지식기여 및 지식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자본요인으로 구성된 상호호혜성이 지식기여와 지식활용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현규·이건창(2015)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중심으로 지식공유의도의 저해요인 및 촉진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호호혜성, 정서적 유대, 이타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지식공유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서한 외(2014)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기업내 SNS가 지식공유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재감을 느끼는 것은 SNS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이 분산되고 파편화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내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관계적 측면의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이타심(Altruism), 호혜성, 책임감, 유대감 등이 있다. 특히 상호호혜성은 현재 자신이 도움을 제공하면 미래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거나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회적 교환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Blau 1964). 호혜성은 타인들로부터 받은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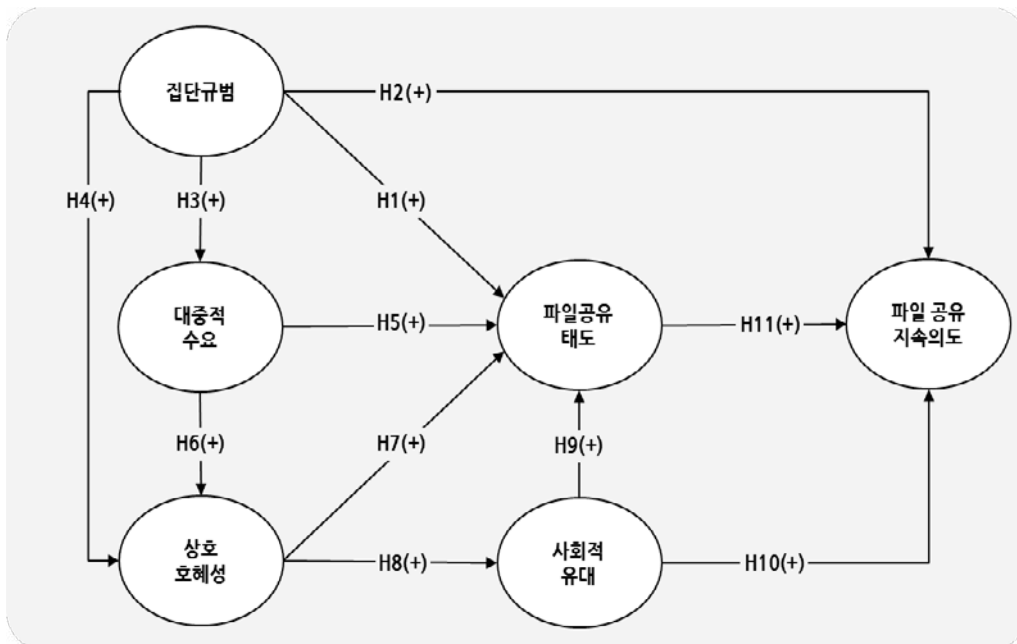
택에 보답하려는 공평한 상호작용으로, 전자실행공동체나 지식커뮤니티, SNS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유행위의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e.g., 강민형·이재남 2015; 김보영·이수진 2012; 전현규·김민용 2013; 전현규·이건창 2015; 정재현 외 2009; Bock et al. 2005; Gilovich et al. 2010). 이타심은 미래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공유를 통해 즐거움이나 심리적 만족과 같은 내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전현규·김민용 2013; 전현규·이건창 2015). 또한 유대감은 친밀감이나 소속감과 같이 상호 연결되고 교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에 기반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Levin and Cross 2004; Xiao et al. 201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상의 공유행동은 사회관계적 요인들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일공유가 친사회적인 행동과 달리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돕는 이타심이나 책임감, 충성심을 제외하고 대중적 요구, 상호호혜성, 사회적 유대 개념을 중심으로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모델과 가설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복제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자단순이용을 위한 복제형태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파일공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교환이론(Homans 1958; Blau 1964)과 집단규범(Cooper and Coston 1999)을 이론적 근거로 주요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델

사회적교환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련 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함축적인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파일공유와 같은 불법행위가 사회집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또한 집단규범이론은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Lin et al. 1999) 집단역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 규범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단규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통합되어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상호간의 호혜성을 기반으로 유대가 강화되면 그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그림 1>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3.2 연구가설

집단규범은 집단의 구성원이 구성원 자격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준거가 되는 행동기준이나 의식으로, 집단내 구성원들은 집단규범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집단규범에는 단체규약과 같이 공식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관습이나 관행 또는 동료 사이의 묵시적 합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유형 등이 있다. 특히 비공식적인 규범에 대한 인지는 개인의 주관성(Subjectivity)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Cooper and Coston 1999). 본 연구에서 집단규범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불특정 다수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행이나 구성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불법 복제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파일공유에 대한 태도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 파일공유 지속의도는 “앞으로도 파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려는 의지의 강도”를 의미한다.

집단규범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에 달려있다(Lin et al. 1999).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범주의 특성 및 평가를 통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집단의 행동기준이나 의식,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은 중요하다. 김광용(2004)은 조직의 윤리문화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김종기·전진환(2007)은 집단의 압력이 불법복제의도의 영향요인임을 실증하였다. 오현숙 외(2013)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이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용인한다고 지각할수록 복제행위의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Tang and Farn(2005), Al-Rafee and Cronan(2006)는 불법복제에 대한 집단내 묵인과 권유가 강할수록 개인의 복제의도가 강해짐을 실증하였으며, Bagchi et al.(2006)은 사회집단의 문화적 영향이 복제에 가장 큰 영향요소라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복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지각한다면 그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H1: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규범은 파일공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규범은 파일공유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중적 요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행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린다는 것으로(Constant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이 콘텐츠 파일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는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

특정행위에 대한 집단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 행위에 대한 집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인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마치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과 같이 특정행위에 대해 집단규범이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집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cf. Noelle-Neuman 1974). 이는 자신의 인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려는 경향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은 개인의 신념구조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개인은 집단 규범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오현숙 외 2013). 따라서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지각은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이자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H3: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규범은 파일공유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호혜성은 상호행위자간의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기대로(정재현 외 2009; Bock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각”을 의미한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Blau(1964)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나 크고 작은 집단 및 조직에서의 사회적 교환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상호호혜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호호혜에 기초하여 집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역학에 관한 저서에서 Forsyth(2006)는 집단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집단은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체계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집단 및 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

(Interdependence)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호의존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집단의 문화나 규범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즉, 집단내 개인들은 자신을 특정집단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맥락에 적합한 내집단 규범을 추구하려는 경향(김광용 2004)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은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규범이 불법복제에 긍정적이라는 지각이 강할수록 집단내 구성원들간에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상호의존성을 강화시켜 상호호혜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측 된다.

H4: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의 규범은 상호호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김보영·이수진(2012)의 연구에서도 도움요청행위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동료들의 도움요청(Heip Seeking)이 동료의 능력이나 상사부하교환관계(Quality of Leader-Member Exchange), 조직부적응(Maladjustment)에 의해 조절되어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Constant et al.(1996)는 정보공유가 일어나고 유지되는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관계의 수, 관계의 다양성, 제공자의 자원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관계의 수는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요청자와 제공자간 연결부족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정보교환행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요청이 많은 특정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로, Glass and Wood(1996)는 불법복제 참여의 상황적 요인이 대중적 요구에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김종기·전진환(2007)의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에 대한 옹고 그

름보다 집단구성원(동료)의 요구에 대한 순응압력이 강할수록 복제에 대한 수용이 높아짐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집단 구성원들의 대중적 요구는 파일공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를 돕고자 하는 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내면의 동기를 충족시키며 상호호혜의 규범에 따라 미래에 긍정적인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Gilovich et al. 2010). Blau(1964)는 사회적 교환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반응은 의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교환과 달리 비물질적인 보상을 포함하며 미래 불특정시점에 특정화되지 않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즉, 상호호혜성을 발현시킨다는 것이다. 강민형·이재남(2015)은 지식공유상황에서 조직내 상사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식제공자는 즉각적으로 상사에게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김보영·이수진(2012)은 동료들의 요청에 의한 지식공유는 상호성 기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비록 파일공유가 반사회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지각은 필요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H6: 집단 구성원들의 대중적인 요구는 상호호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상의 지식네트워크, 커뮤니티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유의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상호호혜성의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e.g., 강민형·이재남 2015; 전현규·이건창 2015; 정재환 외 2009). 상호호혜성은 타인

들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보답하려는 공평한 상호작용으로, 전현규·김민용(2013)은 가상공간에서 지식공유와 같은 행위들은 일방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상호호혜성에 의해 발전된다고 하였다. 또한 불법복제에 관한 Glass and Wood(1996)의 연구에서는 상호호혜성이 불법복제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따라서 구성원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상호호혜가 클수록 파일공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H7: 상호호혜성은 파일공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호혜성은 마치 사회적 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상호보완적인 교류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교환의 균형을 잡아가는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Homans 1958), 상호호혜성이 유지되면 행위자간 관계를 결속시키고 유대를 형성시킨다(Blau 1964). Hendricks(1995)는 행위자간 호혜성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는 단절될 수 있지만 반대로 유지되면 신뢰와 유대가 깊어진다고 하였다. 즉, 교환되는 자원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 상호간의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며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호혜적 교환체계가 동맹 관계를 형성해 주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켜 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일공유에 대한 상호호혜성은 이들간에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8: 파일공유에 대한 상호호혜성은 사회적 유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유대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친밀감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간에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로 대인간 상호간의 친밀감, 정서적 강도, 시간의 총합 등 다차원적인 개념들이 포함된 복합적 개념이다(Steffes and Burgee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 공동체의식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강한 유대감은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집단에 순응하며 애착을 갖는 등 긍정적인 태도와 행위를 강화시킨다(Xiao et al. 2012). Levin and Cross(2004)는 유대강도가 높을수록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됨을 실증하였다. Steffes and Burgee(2009)의 연구에서도 강한 유대감은 관계망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은경·김명숙(2005)은 기관내 구성원간의 관계구축 및 유지에서 생기는 심리적 보상이 높을수록 지속공유 의도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감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전현규·이건창 201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유대가 강할수록 파일공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위의 지속의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추론된다.

H9: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사회적 유대는 파일공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사회적 유대는 파일공유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도는 특정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신념으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향후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개인의 근본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Ajzen 1991). 물론 행동의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태도는 행

동을 이끄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기반의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복제태도와 복제행동 혹은 태도와 행동의도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g., 김중환 2013; 박경자 2015; 전진환·김종기 2009; Al-Rafee et al. 2007; Liao et al. 2010; Peace et al. 2003). 따라서 파일공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파일공유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파일공유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인 파일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순이용을 위한 파일공유행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익명의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결속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파악함으로써 불법복제행동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설문항목을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설문은 광주·전남·전북 소재의 6개 대학의 대학(원)생 중 디지털콘텐츠 불법사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반면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이 높고 학업, 자기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의 유효성

을 높이고자 사전 양해를 구하여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받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응답에 앞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설문지는 불법복제행태에 관한 내용과 본 연구의 관심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파일공유에 관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불법복제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업로드/다운로드에 상관없이 불법복제를 하는 주요 이유와 주 이용경로, 콘텐츠 유형 등에 관한 내용에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이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질문으로 혈연, 지연 등 지인중심이 아닌 불특정 다수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관련연구
집단규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성원들이 디지털콘텐츠 불법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한다고 지각하는 정도	Lin et al. (1999) Tang & Farn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파일공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복제파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음 ▪소속된 커뮤니티 집단에서는 파일공유를 지지하고 권유하는 편임 	
대중적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된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콘텐츠 파일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Constant et al. (1996) Glass & Wood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복제파일을 기다리고 있음 ▪소속된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누군가 파일을 공유해주길 바라고 있음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구성원 중 누군가가 파일을 공유해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음 	
상호 호혜성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파일을 공유한 것처럼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각하는 정도	정재훈 외 (2009) Bock et a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할 의무감을 느끼는 편임 ▪내가 공유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기대함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것이므로 나도 도움을 줘야 함 ▪내가 파일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 여김 	
사회적 유대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각	Steffes & Burgee(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낌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음 ▪나는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함 	
파일공유 태도	디지털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	Ajzen(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콘텐츠 파일을 공유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괜찮다고 생각함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 여김 	
파일공유 지속의도	앞으로도 불법 파일공유를 하겠다는 지속의지의 강도	박경자(2015) 오현숙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도 디지털콘텐츠 파일을 공유할 계획임 ▪콘텐츠 사용을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파일을 공유하고자 노력할 것임 ▪유용한 콘텐츠들은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이들과 공유할 것임 	

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총 28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6부를 제외하고 25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불법 복제행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영상콘텐츠 복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경로는 주로 P2P사이트나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웹과 같은 모바일이나 이동

식 저장매체를 이용한 오프라인 경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측정모형 검정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간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보하고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3>과 같이 표준화적재값(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이 모두 0.5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모두 0.5

<표 2> 응답자의 온라인 복제행태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162	63.3	연령	20~30	210	82
	여	94	36.7		31~40	32	12.5
	소계	256	100		41이상~	14	5.5
			소계		256	100	
불법 복제 콘텐츠 유형	영상(영화/방송물)	130	50.78	불법 복제 이용 경로	P2P사이트	113	44.1
	음악(음원/벨소리)	79	30.86		블로그/홈피/커뮤니티	80	31.3
	만화/캐릭터/사진	16	6.25		스마트폰 어플	23	9.0
	교육/이러닝/강의	11	4.30		웹 하드	21	8.2
	게임	9	3.52		이동식 저장매체	11	4.3
	소프트웨어	9	3.52		이메일/대용량메일	5	2.0
	기타	2	0.78		메신저	2	0.8
	소계	256	100		기타	1	0.4
			소계	256	100		
불법 복제 이유 (2개)	금전적인 이익	165	32.2	불법 복제 이유	최신콘텐츠 획득	53	10.4
	주변의 권유	99	19.3		다수의 사람들이 하므로	43	8.4
	용이한 복제방법	75	14.6		기타	16	3.1
	차이없는 품질	61	11.9		소계	512	100

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의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06). 또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가 0.630~

0.970으로 도입된 관찰변수들이 개념설명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와 AVE의 제곱근 값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잠재변수의 측정항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β	표준화β	표준오차	t-값	SMC	CR	AVE
집단규범	gn1	1	0.846	-	-	0.715	0.837	0.796
	gn2	1.152	0.939	0.058	19.806	0.882		
	gn3	1.091	0.889	0.059	18.484	0.790		
대중적 요구	pd1	1	0.898	-	-	0.806	0.847	0.853
	pd2	1.076	0.919	0.046	23.63	0.845		
	pd3	1.05	0.953	0.041	25.789	0.909		
상호 호혜성	rcp1	1	0.937	-	-	0.878	0.921	0.878
	rcp2	1.118	0.985	0.031	36.636	0.970		
	rcp3	1.025	0.923	0.036	28.176	0.852		
	rcp4	1.029	0.902	0.04	25.928	0.813		
사회적 유대	st1	1	0.794	-	-	0.630	0.765	0.722
	st2	1.102	0.858	0.073	15.135	0.736		
	st3	1.129	0.894	0.071	15.813	0.799		
파일공유 태도	at1	1	0.937	-	-	0.879	0.914	0.897
	at2	1.09	0.967	0.033	33.436	0.935		
	at3	1.035	0.937	0.035	29.553	0.877		
파일공유 지속의도	cti1	1	0.967	-	-	0.936	0.889	0.867
	cti2	1.026	0.975	0.026	39.978	0.950		
	cti3	0.973	0.845	0.043	22.804	0.715		
적합도	$\chi^2/df=1.876(\chi^2: 253.298 df: 135)$, SRMR=.042, GFI=.911, AGFI=.875, NFI=.956, TLI=.973, RMSEA=.058							

주) 모든 항목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분석결과

	(A)	(B)	(C)	(D)	(E)	(F)
(A)	0.892					
(B)	0.150*	0.924				
(C)	0.154**	0.548**	0.850			
(D)	0.072	0.534**	0.627**	0.937		
(E)	0.522**	0.124*	0.167**	0.093	0.947	
(F)	0.563**	0.245**	0.275**	0.144*	0.528**	0.931

주) 1. A:집단규범, B:대중적요구, C:사회적유대, D:상호호혜성, E:파일공유태도, F:파일공유지속의도

2. 0.01수준에서 양측검증, 오른쪽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 대각선 아래는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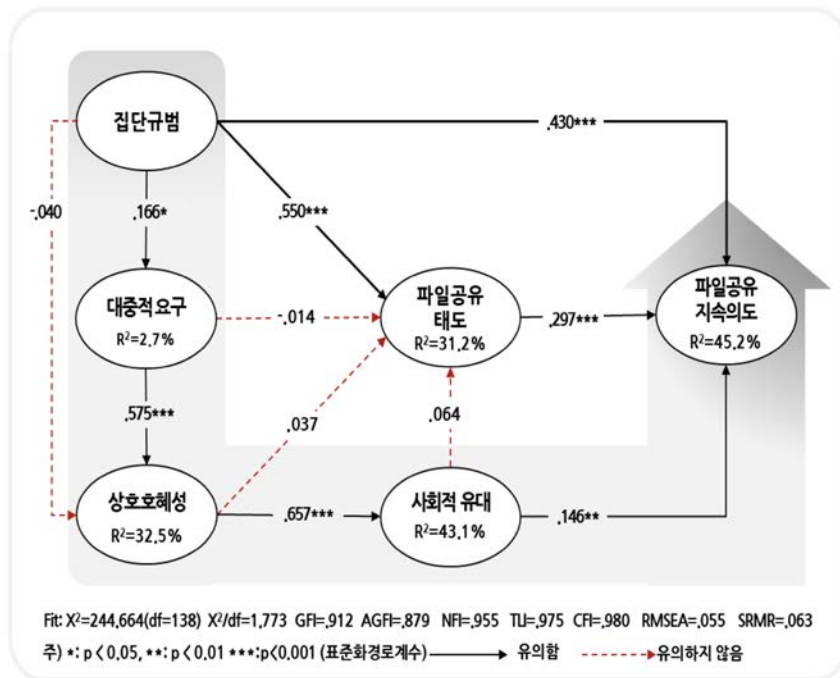
목들의 개별요인 적재치가 교차요인 적재치보다 높고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개념과의 상관관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Fornell and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4.3 구조모형 검증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 얻어지는 경로계수를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chi^2=244.664$ (df=138), $\chi^2/df=1.773$ 으로서 기준치인 3.0보다 작으며, SRMR=.063, RMSEA=.055로 기준치인 0.08이하이며, GFI=.912, AGFI=.879, NFI=.955 등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으로 삼는 주요지표와 비교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인간의 경로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1:집단규범과 파일공유 태도는 $\beta=0.568$ ($p<0.001$)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지지되었으며, H2:집단규범과 파일공유 지속의도는 $\beta=0.468$ ($p<0.001$)로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3:집단규범과 대중적 요구는 $\beta=0.204$ ($p<0.05$)로 나타나 지지되었으며, H4:집단규범과 상호호혜성은 $\beta=-0.045$ ($p=0.477$)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H5:대중적 요구와 파일공유 태도간의 관계는 $\beta=-0.012$ ($p=0.845$)로 기각되었으며, H6:대중적 요구와 상호호혜성의 관계는 $\beta=0.523$ ($p<0.001$)로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H7:상호호혜성과 파일공유 태도는 $\beta=0.034$ ($p=0.679$)로 기각되었으며, H8:상호호혜성과 사회적 유대는 $\beta=0.665$ ($p<0.001$)으로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H9:사회적 유대와 파일공유 태도는 $\beta=0.058$ ($p=0.416$)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10:사회적 유대는 파일공유 지속의도에 $\beta=0.139$ ($p<0.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11:파일공유 태도와 파일공유 지속의도는 $\beta=0.313$ ($p<0.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도해

<표 5> 가설검정 결과

구성변수 간 관계				비표준화 β	표준화 β	t-값	P	결과
H1	집단규범	→	파일공유 태도 (+)	0.568	0.550	8.442	***	채택
H2	집단규범	→	파일공유 지속의도 (+)	0.468	0.430	6.661	***	채택
H3	집단규범	→	대중적 요구 (+)	0.204	0.166	2.494	*	채택
H4	집단규범	→	상호호혜성 (+)	-0.045	-0.040	-0.712	0.477	기각
H5	대중적 요구	→	파일공유 태도 (+)	-0.012	-0.014	-0.195	0.845	기각
H6	대중적 요구	→	상호호혜성 (+)	0.523	0.575	9.787	***	채택
H7	상호호혜성	→	파일공유 태도 (+)	0.034	0.037	0.414	0.679	기각
H8	상호호혜성	→	사회적 유대 (+)	0.665	0.657	12.028	***	채택
H9	사회적 유대	→	파일공유 태도 (+)	0.058	0.064	0.813	0.416	기각
H10	사회적 유대	→	파일공유 지속의도 (+)	0.139	0.146	2.890	**	채택
H11	파일공유 태도	→	파일공유 지속의도 (+)	0.313	0.297	4.637	***	채택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로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결론부분에 기술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경로도해는 <그림 2>에, 가설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5. 토의 및 의의

5.1 결과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불법 파일공유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집단규범 및 사회적 교환이론을 토대로 주요요인을 구성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먼저, 집단규범에 관한 결과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일공유에 대한 집단규범은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 및 집단

내 구성원들이 디지털콘텐츠 불법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파일공유에 대해 호의적이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법복제행동과 집단규범의 연관성을 실증한 김광용(2004), 김종기·전진환(2007), 오현숙 외(2013), Tang and Farn(2005)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집단의 분위기나 구성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이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단규범은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일공유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의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집단규범과 대중적 요구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규범이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집단내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복제파일을 필요로 하거나 누군가 공유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며, 실제로 집단 내의 묵인이나 관행이 파일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집단 규범과 상호호혜성간에는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제행위에 대한 집단 내 구성원들의 관행이나 암묵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파일 공유는 상호호혜를 기대할 만큼 친사회적인 행동이거나 공식적인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 집단규범에 관한 결과는 불법복제 관련 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이나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또는 사회적 허용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다음으로 사회관계적 요인들과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에 관한 결과이다. 첫째, 대중적 요구, 상호호혜성, 사회적 유대와 파일공유 태도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식공유 및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연구에서는 경제적 목적이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을 호혜성이나 유대감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e.g., 강민형·이재남 2015; 마은경·김명숙 2005; 전현규·이건창 2015; 정재훈 외 2009; Glass and Wood 1996; Levin and Cross 2004; Xiao et al. 2012). 이처럼 연구결과가 상이한 까닭은, 지식공유나 정보공유와 달리 파일공유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에 따라 집단의 개념과 범위, 집단의 특성, 집단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된다. 둘째, 사회적 유대는 파일공유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에 대한 친밀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파일공유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마은경·김명숙(2005), Levin and Cross(2004), Steffes and

Burgee(2009), Xiao et al.(2012)의 주장이 유효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일공유 태도는 파일공유 지속의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공유에 대해 호의적일수록 행위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법복제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간에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과(김중환 2013; 박경자 2015; 전진환·김종기 2009; Al-Rafee et al. 2007; Liao et al. 2010; Peace et al. 2003) 동일한 것으로, 태도는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덧붙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관계적 요인들과 파일공유 태도의 관계는 기각되었으나 ‘집단규범과 대중적 수요’, ‘대중적 수요와 상호호혜성’, 그리고 ‘상호호혜성과 사회적 유대’간의 영향관계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이를 풀이해 보면 불법 파일공유에 대해 집단규범이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파일공유를 요구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대중적 요구에 대한 지각이 강할수록 상호호혜에 대한 기대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호혜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적 유대가 친밀해지며, 이들간의 사회적 유대가 강화될수록 파일공유 지속의도 또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치 집단의 어느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질병이 집단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고 확대되는 집단 내 전염(Contagion)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집단 내에서 전염은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의 감정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파일공유와 같은 불법행위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상,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불법 파일공유가 사회적 집단에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탐색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반사회적이고 불법행위인 디지털콘텐츠 파일공유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주요 요인을 구성하여 이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파일공유 태도 및 지속의도의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 윤리적 관점, 제도적 접근 등 기존연구들에 비해 차별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업로드, 다운로드와 함께 불법복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다뤄져 온 파일공유를 세분화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일공유현상을 분절화된 개인의 행위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집단에서의 파일공유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집단규범의 영향력을 실증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집단의 비공식적인 규범 또한 집단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사이버상의 공유행동은 주로 지식경영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공유행동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커뮤니티의 지식경영 및 올바른 공유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집단에서의 윤리문화가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개인은 소속된 집단이나 집단내 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을

살피고 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집단의 윤리문화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올바른 집단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집단규범이 엄격하고 강화된다면 이는 집단내 구성원들의 신념구조에 통합되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개인들의 자정의 노력이 모인다면 사이버상의 올바른 공유문화와 콘텐츠문화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록 파일공유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이기는 하지만 이타적이며 호혜적인 심리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함께 공유에 대한 열망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콘텐츠 유형, 커뮤니티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령, 파일공유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여부나 콘텐츠의 종류 및 가격과 품질, 커뮤니티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보다 깊이있는 논의와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따른 기억의 누락과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주체의 특성상 일부 응답자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표본이 대학(원)생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사설계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파일공유 중단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파일공유 지속 요인

들과의 비교논의를 통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내 파일공유 지속 현상을 살펴본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 파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이유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불법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덜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함이거나, 깨진 유리창 현상(Broken Window Phenomena)과 같이 책임소재를 분산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정성적인 연구나 역동적인 교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실제 데이터기반의 분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강민형, 이재남, 강민형, 이재남, “개인의 지식기여 선행요인 간 상호작용효과,” 지식경영연구 (16:1), 2015, pp. 55-69.
2. 김광용,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1:4), 2004, pp. 48-86.
3. 김보영, 이수진, “동료의 과업관련 도움요청과 이들의 특징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3:4), 2012, pp. 101-116.
4. 김왕석, 성동규, 김민정, 김광협,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1), 2005, pp. 221-245.
5. 김종기, 전진환, “사회유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7:4), 2007, pp. 45-68.
6. 김중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12:2), 2013, pp. 131-152.
7. 마은경, 김명숙, “공공기관 내 구성원간의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 사회적 교환이론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 Review (17:1), 2005, pp. 195-217.
8. 박경자,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15, pp. 489-499.
9. 박현정, 김상훈, “영화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4:4), 2011, pp. 1-20.
10. 이서한, 이호, 김경규, “기업내 SNS가 지식공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5:4), 2014, pp. 189-206.
11. 안지혜, “인터넷 파일공유에 관한 담론 과정 분석과 저작권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3), 2010, pp. 107-132.
12. 오현숙, 박남기, 강내원,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규범이 불법 다운로드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비교,” 언론과학연구 (13:4), 2013, pp. 343-378.
13. 전진환, 김종기, “대학생들의 S/W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 논문지 (19:2), 2009, pp. 127-140.
14. 전현규, 김민용, “온라인 채용시험정보 커뮤니티 내에서 지식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4:2), 2013, pp. 72-89.
15. 전현규, 이건창, “긍정감정과 부정감정이 개인의 지식기여 및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지식경영연구 (16:1), 2015, pp. 21-54.
16. 정재훈, 양성병, 김영걸, “온라인 지식네트워크 내에서의 지식기여 및 지식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영과학회지 (34:3), 2009, pp. 1-27.

[해외 문헌]

1.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991, pp. 179-211.
2. Al-Rafee, S. and Cronan, T.P., “Digital piracy: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 towar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63:3), 2006, pp. 237-259.
3. Bagchi, K., Kirs, P. and Cervený, R. “Global software piracy: Can economic factors alone explain the trend?,” Communications of the ACM (49:6), 2006, pp. 70-75.
4. Blau, P.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1964.
5. Bock, G.W., Zmud, R.W., Kim, Y.G. and Lee, J.N., “Behavioral intention formation in knowledge sharing: Examining the roles of

- extrinsic motivators, social-psychological forces, and organizational climate,” *MIS Quarterly* (29:1), 2005, pp. 87-111.
6. Chen, Y.C., Shang, R.A. and Lin, A.K., “The Intention to download music files in a P2P environment: Consumption value, fashion, and ethical decision perspectives,”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7:4), 2008, pp. 411-422.
 7. Constant, D., Sproull, L.S. and Kiesler, S., “The kindness of strangers: The usefulness of electronic weak ties for technical advice,” *Organization Science* (7:2), 1996, pp. 119-135.
 8. Cooper, T.L. and Coston, J., “Symposium on grassroots organizations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 Theory and Behavior* (2:1/2), 1999, pp. 107-140.
 9. Fornell, C. and Larcker, D.,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1981, pp. 39-50.
 10. Forsyth, D.R. *Group Dynamics*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Publishing, 2006.
 11. Gallegos, F., “Software piracy: Some facts, figures, and issues,”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8:4), 2000, pp. 34-56.
 12. Gilovich, T., Keltner, D. and Nisbett, R.E., *Three dynamic authors bring a fresh perspective to social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2th ed.), New York: Norton & Company, 2010.
 13. Glass, R.S. and Wood, W.A.,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oftware piracy: An equity,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 1996, pp. 1189-1198.
 14. Hair, J.F.,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and Tatham, R.L.,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006.
 15. Hendricks, J., *Exchange theory in aging*, In G. Maddox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2nd eds.), New York: Springer, 1995.
 16. Higgins, G.E., Fell, B.D. and Wilson, A.L., “Digital piracy: Assessing the contributions of an integrated self-control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06, criminal justice studies,” *A Critical Journal of Crime Law, & Society* (19), 2007, pp. 3-22.
 17. Homans, G.C.,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 1958, pp. 597-606.
 18. Levin, D.Z. and Cross, R., “The Strength of weak ties you can trust: The mediating role of trust in effective knowledge transfer,” *Management Science* (50:11), 2004, pp. 1477-1490.
 19. Liao, C., Lin, H.N. and Liu, Y.P., “Predicting the use of pirated software: A contingency model integrating perceived risk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91:2), 2010, pp. 237-252.
 20. Lin, T., Hsu, M., Kuo, F. and Sun, P., “An Intention model-based study of software piracy,” *Proceedings of the 32nd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Sciences*, 1999, pp. 1-8.
 21. Noelle-Neuman, E.,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 Communication (24), 1974, pp. 43-51.
22. Peace, A.G., Galletta, D.F. and Thong, J.Y.L.,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1), 2003, pp. 153-177.
23. Siponen, M.T. and Vartiainen, T., "Attitudes to and factors affecting unauthorized copying of computer software in Finland,"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4:4), 2005, pp. 249-257.
24. Steffes, E.M. and Burgee, L.E., "Social ties and online word of mouth," *Internet Research* (19:1), 2009, pp. 42-59.
25. Tang, J. and Farn, C., "The Effect of interpersonal influence on softlift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56:2), 2005, pp. 149-161.
26. Xiao, H., Li, W., Cao, X. and Tang, Z., "The online social networks on knowledge exchange: Online social identity, social tie and culture orientation,"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15:2), 2012, pp. 4-24.

● 저 자 소 개 ●



박경자 (Kyung Ja Park)

전남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E-commerce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경영학부와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 강의를 하였다. 현재 순천대학교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최근에는 디지털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공존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E-commerce, 정보시스템 수용후 사용자 행태, 온라인소비자행동 등이며, 경영학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지식경영연구, 전자상거래연구 등 다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